



미 증시, 파월 의장 발언을 소화하며 약보합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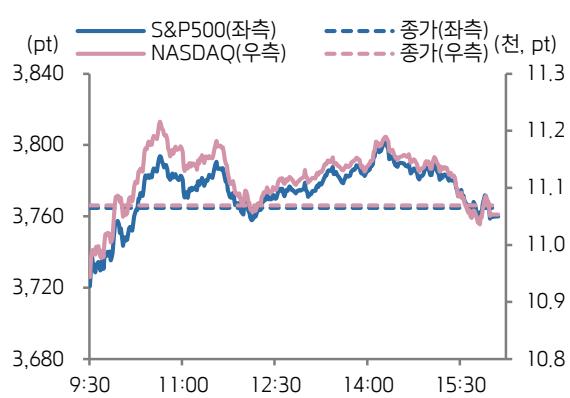
22 일(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침체 가능성 시인, 일부 위원들의 추가 사이언트 스텝 발언 등을 소화하며 장 중반까지 상승흐름을 이어갔으나, 이후 인플레 및 침체 불안 재부각 속 단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약보합세로 마감(다우 -0.15%, S&P500 -0.13%, 나스닥 -0.15%, 러셀 2000 -0.22%).

파월 연준 의장은 전일 반기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상원 의회에 참석하여 '향후 몇 달간 경제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 '경기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침체 가능성에 언급. 다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3.1%대까지 하락.

한편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2 분기 경제성장률이マイ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할 것이라고 전망.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을 정당화 했다', '생각한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7월 금리 인상폭 역시 75bp 가 될 것이지만 100bp 씩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는 등 7월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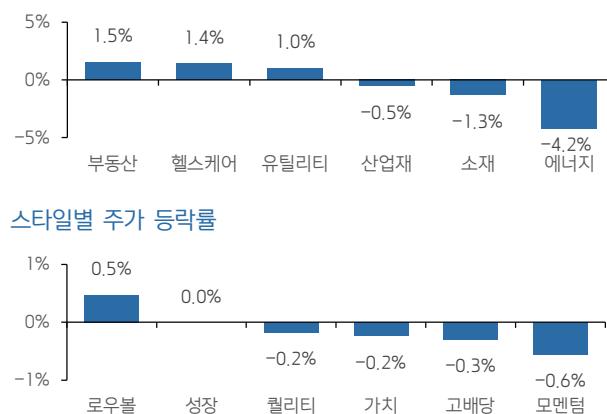
업종별로 부동산(+1.5%), 헬스케어(+1.4%), 유틸리티(+1%) 등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4.2%), 소재(-1.3%), 산업재(-0.5%) 약세. 전일 급등했던 에너지 업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둔화 우려와 바이든 행정부의 유류세 면세 법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하락. 전일 반등을 보였던 애플(-0.38%), 알파벳(-0.05%), 테슬라(-0.4%) 등 대형기술주들 역시 상승분을 소폭 반납.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 | | | | |
|-------------|-----------|--------|-----------|----------|---------|
| 주식시장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S&P500 | 3,759.89 | -0.13% | USD/KRW | 1,297.79 | +0.32% |
| NASDAQ | 11,053.08 | -0.15% | 달러 지수 | 104.21 | -0.22% |
| 다우 | 30,483.13 | -0.15% | EUR/USD | 1.06 | -0.01% |
| VIX | 28.95 | -4.11% | USD/CNH | 6.71 | -0.01% |
| 러셀 2000 | 1,690.28 | -0.22% | USD/JPY | 136.16 | -0.07% |
| 필라. 반도체 | 2,619.71 | -1.12% | 채권시장 | | |
| 다우 운송 | 12,914.85 | -1.12% | 국고채 3년 | 3.520 | -14bp |
| 유럽, ETFs | | | 국고채 10년 | 3.675 | -9.7bp |
| Eurostoxx50 | 3,464.64 | -0.84% | 미국 국채 2년 | 3.056 | -14bp |
| MSCI 전세계 지수 | 594.43 | -0.49% | 미국 국채 10년 | 3.156 | -11.9bp |
| MSCI DM 지수 | 2,543.36 | +1.94% | 원자재 시장 | | |
| MSCI EM 지수 | 1,016.98 | +1.66% | WTI | 106.19 | -3.04% |
| MSCI 한국 ETF | 57.81 | -2.95% | 금 | 1838.4 | -0.02%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9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7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7.2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전거래일 과도한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
2. 장전 동시호가 및 장중 신용 관련 반대매매 출회 가능성
3. 원/달러 환율 1,300 원선 돌파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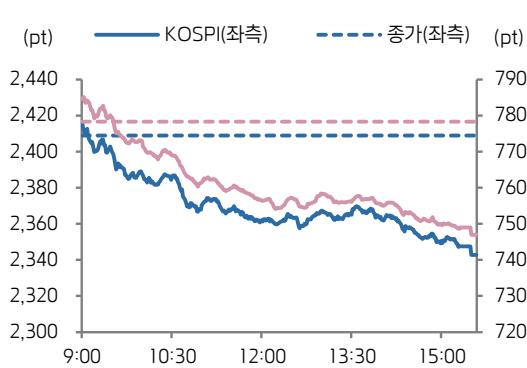
파월 의장은 22 일 상원 청문회에서 1) 통화정책은 데이터 의존적이며, 2)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고, 3) 인플레이션 잡힐때까지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고용, 성장보다는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파월 의장 역시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과정에서 물가도 빨지 잡히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

물론 주식시장은 이미 침체 리스크를 반영해오고 있으므로 파월의 침체 가능성 시인에 대해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임. 그러나 고인플레이션 고착화 속에서 1~2 개 분기 단기 침체가 아니라 1 년 이상의 장기 침체가 현실화될 시에는 증시의 추가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결국 연준의 긴축 강도 및 증시의 방향성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가, 농산물, 기대인플레이션 등 관련 데이터 확인 작업이 중요해졌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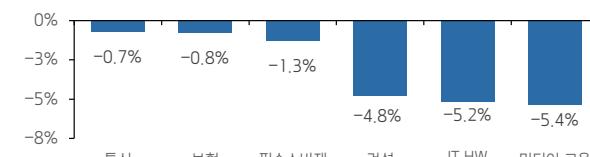
전거래일 코스피는 매크로 불확실성 속 반대매매 물량 출회, 아시아지역 일부 펀드 청산 루머 등 수급과 루머성 재료들로 인해 투매현상이 출현하며 연저점을 경신(2,342.81pt, -2.7%). 금일에는 기술적 매수세 유입으로 2 차전자셀, 반도체, 인터넷 등 낙폭과대주 위주로 반등에 나설 전망. 다만, 장전 동시호가 혹은 장중에 미수 신용, CFD(외국인 창구도 섞여있음) 등 관련 반대대매 물량 출회로 인해 장중 수급 노이즈가 커질 가능성을 염려해졌다고 판단.

한편, 코스피는 6 월 이후 약 12.8% 하락, 연초 이후로는 21.3%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 해있는 상황. 52 주 고점대비 하락률은 29.3%로 지난 코로나 판데믹 당시의 고점대비하락률인 35.7%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 조정을 받은 시점. 현재 글로벌 증시 변동성 지수의 대용치인 미국의 VIX 지수가 30pt 선이며, 판데믹 시절 80pt 상회했던 만큼 한국 등 주요국 증시의 저점은 아직 멀었다는 의견들도 존재. 그러나 당시는 시스템리스크, 블랙스완 이벤트에서 기인한 반면, 현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예상해왔던 악재로 하락을 맞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부분. 더 나아가, 코스피 선행 PBR 과 후행 PBR 이 각각 0.85 배, 0.92 배로 판데믹 기간('22년 2 월~3 월) 평균인 0.77 배, 0.79 배에 근접해 있으며, RSI 등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